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9월 13일(주일) 제1065호



회복 축제 참가자들이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 기쁨을 연습하고 있다.

회복의 열쇠는 기쁨

2015 회복축제 막 내려 ... 1,500여 명 참석 성황 치유와 회복 원리 배우고, 일상생활 적용 방법 연습

회복의 열쇠는 기쁨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상처와 대면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원리였다. 기쁨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공동체의 존재목적이었다. 기쁨을 되찾는 방법은 감사를 떠올리고,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었다.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이 끝이났

다. 이제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솟을 차례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끽할 때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은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축제였다.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떠올리고, 감춰졌던 상처와 대면했다.

짐 외일터 박사와 에드 코리 목사의 공동 강의로 문을 연 회복축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다음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임마누엘 테라피 세미나도 큰 호응을 받았다. 전문의 칼 레이먼 박사가 임마누엘 테라피를 소개했다. 임마누엘 테라피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려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한 기쁨을 가지고 상처와 대면해 치유하는 기법이다.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은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9번의 강의와 5번의 세미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강사들의 메시지를 하나라도 놓칠 새라 열심히 받아 적고 강

의 중간에 실제로 연습도 했다.

김은미 자매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회복축제가 큰 도움이 됐다"고 했고, 김옥연 권사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 무척 유익했다"고 말했다.

최경민 성도는 "오랜 임상경험과 세계적 권위의 강사들의 실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강의가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관련기사 4-5면〉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추석연합집회 'Build Up'

9월 26~28일, Acts29 비전빌리지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이 막 오른다. 온누리M미션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합집회에는 네팔, 러시아, 몽

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uild Up'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석연합집회에서는 4번의 예배와 국제문화축제, 팀 대항 야외활동, 나라별 음식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아치트 전도사, 유세르게이 목사, 데벤드라 목사, 김창욱 전도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추석연합집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봉사자로 섬겨 줄 성도는 온누리M미션 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10-3937-3927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 막 오른다

27~29일 햇불선교센터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가 막 오른다. 9월 27~29일 햇불선교센터(양재 온누리교회)에서 'Vision, Mission, Response'를 주제로 열린다.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에서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

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 교회), 김하중 장로(전 통일부장관), 권혁빈 목사(온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이화한국무용단, 소프라노 김영미, 한중시랑문예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해 국내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행사다.

15인의 천사 섬기는 교사들

재가(在家) 장애인 섬기는 모자이크 플러스 신수하 부장

서빙고 근린공원에 위치한 EM홍보관 입구에 유난히 눈에 띄는 작품들이 많다. 흙으로 빚어낸 십자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그림들이다. 이 작품들은 모자이크 플러스 소속 15명의 재가(在家) 장애인들이 만들고 그렸다. 모자이크 플러스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미술과 체육, 음악치료 등으로 자활과 재활을 돕고 있다. 오늘 만난 인물은 모자이크 플러스 교사로 섬기고 있는 신수하 부장이다. 그녀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 앞서 조건을 제시했다. 자신이 주(主)가 되는 인터뷰가 아니라 모자이크 플러스 자체들과 교사들의 이야기가 조명되는 인터뷰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그녀의 바람대로 모자이크 플러스 소속 15인의 천사들과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녀의 첫마디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움이였다. 중증장애가 있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장애인들은 청소년 시기까지는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녀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주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장애인들을 돕는 봉사자와 교사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예매 시간에 주보를 보다 우연히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장애인들에게 마음이 끌려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당시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를 섬기던 전도사가 그녀를 환영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장애인을 섬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녀는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미술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일은 녹록하지 않았다. 가르쳐야 한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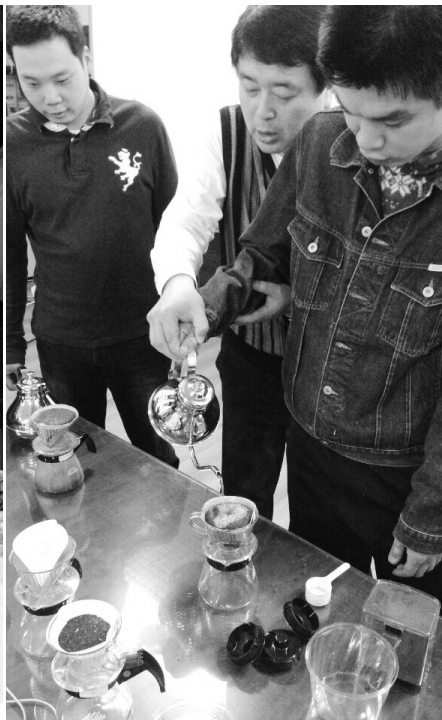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녀는 겸손을 배웠다. 장애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장애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삶의 태도도 바뀌어 갔다. 그녀는 그 시간을 “모난 부분을 깎고 또 깎으며 내면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2009년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무엇인가 원동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제 발로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부를 찾아왔다. 미국에서 하던 사역을 한국에서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사랑부와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받은 것이 정말 많아요. 예수사랑부 교사로 섬기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



▲ 두 팀으로 나눠 협동화를 그리는 학생들.



▲ 바리스타 핸드드립과정을 배우는 학생들.

어요. 모두 하나남게서 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장애인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산소마스크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초 ‘모자이크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모자이크 플러스는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뜻이다. 그녀가 온누리교회에 오기 전에도 ‘모자이크’라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모자이크 플러스다.

모자이크 플러스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재가 장애인들의 성격 유형분석, 취업 기회 제고, 재능 발굴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재가 장애인들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모자이크 플러스는 재가 장애인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산소마스크다.

모자이크 플러스에서는 전문가들을 섭외해 장애인들이 미술치료, 체육,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일러스트와 손글씨, 우쿨렐레 배우기, 아유회, 전시회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녀는 모자이크 플러스 자체들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활동일지를 기록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모자이크 플러스는 지난 4월 장애인 주일에 전시회와 자선장을 열었다. 모자이크 플러스 소속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과 십자가 모양의 도자기를 구워 성도들에게 판매했다. 자선장 수익금은 모자이크 플러스 학생들에게 분배했다. ‘나만의 십자가’라는 작품의 작가 이창현 학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라며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특별한 수료증을 받았다. 서부 재활체육센터에서 바리스타 핸드드립과정을 수료했다고 준 증서다. 일반인들에게는 바리스타 핸드드립과정이 어렵지 않은 과정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수료증 획득은 장

애인들에게 분명 좋은 기회다. 자신들도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취업의 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사랑부 모자이크 플러스 소속 장애인 중에 취업한 자체는 1~2명에 불과하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은 그만큼 특별하다. 최근에 청소년업체에 취업한 청년도 있다. 작은 일이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한다. 이처럼 모자이크 플러스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되어주기도 한다. 또한 모자이크 플러스는 재가 장애인들이 사회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동체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장애인 섬겨줄 천사를 찾습니다

화-금요일 오전 11시30분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식당이 분주하다. 장애인 청년들이 EM 홍보관에서 교회 식당까지 밥을 먹으러 오기 때문이다. 식당까지 가는데 최대 20분이 걸린다. 그만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원봉사자와 교사들이 짝이 되어 이동한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교사가 13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은 인원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녀가 모자이크 플러스 소속 장애인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줄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녀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을 공나물 기르는 법과 같다고 했다.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말한 대로 모자이크 플러스 소속 장애인들의 성장과 활약이 기대된다.

문의: 신수하 부장(010-3128-2332)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일서 5:14~21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 드리고, 최선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불확실해 보여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오늘 본문은 기도응답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14~15절).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이 우리가 구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확신과 담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가 전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구합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더 자라면 부모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해드릴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인간의 자녀와 하

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구하면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고 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나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기도응답

세 가지 유형의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 둘째는 그대로 이뤄주는 것, 셋째는 기다리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나온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이버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모세’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능력을 잘 압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민족이 생존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했을 때도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

라운 기도응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0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흥분해서 바위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인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퍼붓고, 바위를 두 번씩이나 쳤습니다. 감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로 정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영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준 모세가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뤄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고후 12:8-9).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응답하지 않은 것을 또 다른 응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급의환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기 때문에 아그립바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혜로운 철학자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다면 아그립바 왕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뤄주십니다.

분명히 들어주시는 기도

두 번째 기도응답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강력하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대로 이뤄집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서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확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13면에 계속)



짐 와일더 박사

기쁨은 가장 소중한 선물

기쁨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에서 비롯됐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다.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뇌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학자들은 뇌의 각 부분을 나눠서 이름을 붙였다. 우리는 뇌의 한 부분을 ‘기쁨센터’라고 이름 지었다. 뇌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쁨센터는 끝없이 성장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도록 하셨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기쁨이다. 뇌는 기쁨 때 가장 잘 기능한다. 기쁨을 연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했던 당시의 감정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느꼈던 감사의 감정을 고스란히 다시 느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내가 교감하고 있다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 순간을 깊게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그 감사한 순간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사람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르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감사를 나눌 때 기쁨은 퍼져나간다.

높은 수준의 기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정체성도 굳건하고, 튼튼해진다. 기쁨의 상태가 높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기쁨의 상태가 낮은 사람은 잘 견디지 못한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기쁨의 상태가 높은 사람은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센터’가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만드셨다. 뇌는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되었다. 기쁨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순간에도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강한 결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기쁨을 많이 경험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굳건해진다. 내가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도 미소를 짓는다. 두 사람 모두 기쁨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감사를 떠올리고, 나누고, 표현하라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권위자들의 강의는 무엇인가 달랐다.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가 아니었다. 듣고,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는 실천 강의였다. 9번의 강의와 5번의 세미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감사를 떠올리고, 나누고, 표현하라는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열쇠는 기쁨이라는 것이다. 임마누엘 테라피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고, 치유하는 기법이다.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주강사들의 핵심메시지를 요약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에드 코리 목사

세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3대를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해 보자. 상류부터 하류까지 흐르는 물이 바로 기쁨이다. 공동체는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부모가 부모를, 부모가 아이를 기쁨으로 양육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흐름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기쁨은 탄탄하게 자란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감사의 순간을 묵상하는 연습을 통해 감사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선물하면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5분 동안 해준다. 5분이 지나면 순서를 바꿔 축복기도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쁨의 수위가 높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정체성도 더 잘 자랄 수 있고, 기쁨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공동체가 두려움을 공유한다. 독성이 있는 공동체는 대부분 기해자가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고 통제한다. 독성이 있고 두려움에 빠진 공동체를 보면 대부분 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독성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아무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것이 ‘살롬’이다. 살롬은 히브리어로 평화와 평강이라는 의미다. 단순한 평화와 평강이 아닌 더 깊은 뜻이 있다. 살롬은 모든 것이 마땅한 자리에 있고 서로 마땅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살롬이다. 감사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살롬이 자라난다. 살롬을 경험하고, 살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면 서로 인식에 들어갈 수 있다. 감사는 살롬의 증거다. 연습해야 하는 대상이다. 잃어버린 살롬을 되돌리는 것은 나의 일이다.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계속 감사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 살롬이 자리 잡을 것이다.



성도들이 ‘살롬’을 연습하고 있다.

서는 큰 기쁨을 연습해야 한다. 큰 기쁨을 누구와 연습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쁨 연습은 허용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더 주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기쁨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기쁨 VS 빙스(BEEPS)

뇌는 두려움보다 기쁨을 더 좋아한다. 기쁨은 두려움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기쁨을 경험하면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뇌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대체할 것을 찾게 된다. 기쁨을 줄 만한 대용품들을 찾는다. 이것을 빙스(BEEPS)라고 한다. 행동, 사건, 경험, 사람, 약물을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런 것들도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유발한다. 성관계, 휴대폰, 게임, 약물, 술 등 빙스의 종류는 무한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위적인 기쁨을 쫓으면 문제가 생긴다. 빙스로 인한 기쁨을 오래 경험하면 할수록 잘못된 애착이 더 강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도 빼앗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바로 기쁨이라는 열쇠를 쥐는 것이다. 기쁨은 회복의 근간이다. 기쁜 마음을 가지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도 좋다. 몸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다. 우리 몸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눈을 크게 뜨고, 화가 나면 행동한다. 만약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제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세 번 반복한다. 그리고 심장 박동에 맞춰 가슴을 두드린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조금 더 빨리 두드리고, 문지른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잠잠해진다. 감사한 것들을 잘 떠올릴 수 있게 된다.

감사 연습하기

건강한 다세대 공동체란 무엇일까. 최소한 3대(代) 이상 이어야 한다. 아이들, 부모, 조부모로 구성된 가족 말이다. 기쁨을 키워나가는데 각각의

세미나

임마누엘 테라피 사용법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 치유법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임마누엘 치유법은 외상(상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충분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임마누엘 테라피다.

임마누엘 테라피는 누구나 간단한 연습을 통해 시도할 수 있고,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예수님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주님과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은 감사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크다. 임마누엘 테라피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뇌와 영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을 떠올리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슬펐던 감정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슬픈 느낌을 받는다. 화가 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과거에 감사했던, 긍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뇌는 감사한 마음을 활성화시키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배경을 만들어준다.

의식적으로 감사하기를 잘 이해하면 된다. 마

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확신이 들면 삶이 달라진다. 임마누엘 테라피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자신이 직접 체험한 감사를 떠올려보라. 감사를 떠올리고, 그 때 그 순간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과 관련한 그 어떤 긍정적인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긍정적인 기억을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난 순간이라든지, 즐거웠던 크리스마스의 추억, 재미있었던 휴가 등이다. 당시에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다시 떠올리면 된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만한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기억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평범한 기억의 감사가 임마누엘의 기억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떠올리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없던 기억을 임마누엘 기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장점이 많다. 나중에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 그 때 그 기억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

지고 상호교류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와 질문, 필요에 대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게 얘기해주세요”라고 한다.

이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온다. 그 순간 포기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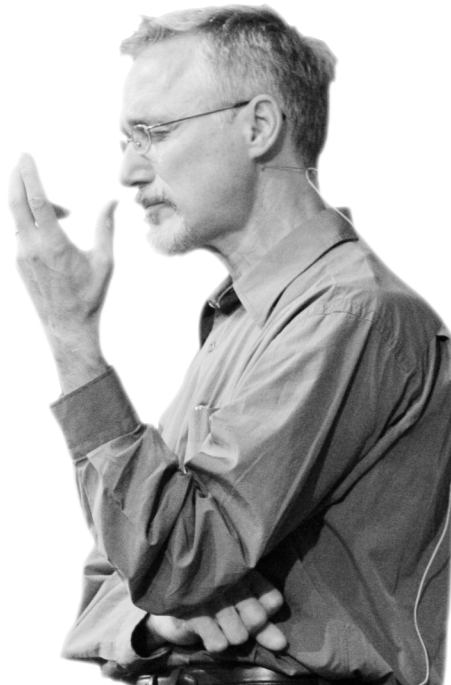
다시 “여전히 당신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라고 계속 질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테라피의 문제해결 방법이다.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기억(내용)일지라도 상관없이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묘사

해보라고 이야기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든 떠올리고, 표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임마누엘 테라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테라피가 성공하면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적절한 상호교류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동행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테라피다.



칼 레이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진짜 기쁨을 되찾자!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짐 와일더 외 지음 | 두란노 | 17,000원

이 책은 짐 와일더 박사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왜 기쁨을 되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짐 와일더 박사는 이 세상은 가짜 기쁨에 취해 있다고 진단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 기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대용품을 찾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야말로 기쁨을 배우는 탁월한 공간이라고 제시했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기쁨이 자라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은 순간 좌절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짐 와일더 박사는 뇌에 기쁨의 기술을 새기고 삶의 상처에서 기쁨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노래하고 있다. 문제에서 벗어나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익히는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원리라고 밝히면서 말이다.

JOY STARTS HERE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짐 와일더 외 지음 | 두란노

온전히 벗어나기 위한 기쁨의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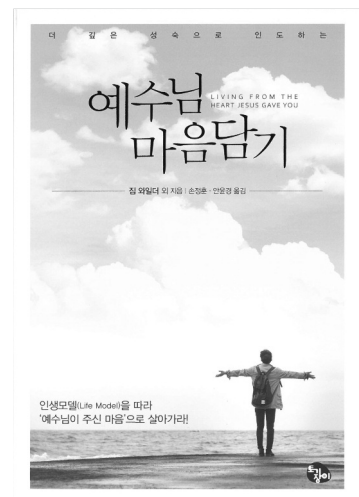
상처 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마음담기〉

짐 와일더 외 지음 | 토기장이 | 12,000원

이 책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공동체에서 상처 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이 책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필독서다. 교회에서 상처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예수님은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살면서 상처 받고 마음 상한 이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조명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 여정이 순탄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고, 그분을 초대해 참 나를 만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생명을 주고받고, 더 높은 수준의 성숙을 추구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온누리 선교의 힘은 융합선교에서 나온다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1.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2.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4. 나는 선교사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 선교하고 있다. 2000선교 본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 NGO더멋진세상이 바로 그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은 열방 복음화를 목표로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융합선교라고 한다. 2000선교 본부는 전체적인 선교 정책을 정하고,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TIM은 선교사 파송, 후원, 지원, 관리를 담당한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선교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온누리M미션은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멋진세상은 소외된 지구촌 이웃을 섬기는 국제개발기구다. 이들 5개 기관은 선교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교회와 5개 선교 기관들이 함께 빛어 낸 합작품



융합선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로운 선교 트렌드다.

‘선교를 선교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도육한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온누리교회 창립 30년은 곧 선교 3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누리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선교중보기도모임으로부터 시작된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는 28년이라는 시간을 온누리교회 선교와 함께 했다. 구심력(안으로 모이는 힘) 중심의 지역 교회가 원심력(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으로 움직이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

TIM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

회를 세우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1,176명의 장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의 65.8%에 해당된다. TIM은 온누리교회 선교 주력 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선교적 융합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선교의 두 가지 구조. 모달리티는 1차적 헌신 집단을 의미하며 지역 교회가 대표적인 예다. 소달리티는 1차적 헌신 집단에서 다시 2차적인 헌신을 한 결리진 집단을 말하는 데, 역사적으로 수도원이나 선교 단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TIM은 선교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대응과 선교체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에 충

실할 것을 결의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전략적 선교를 강화하고, 전략 수행을 위한 팀(team) 사역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려고 한다. 선교사와 선교사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및 케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온누리교회와 협력기관들의 다양한 자원들을 모으는 융합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별적 사역은 전략적 팀(Strategic Team)으로 재구성하도록 유도하고, 하나의 팀이 공통의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는 최소 단위의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각 팀들을 이끌어 나가는 코디네이터(Strategic Coordinator)를 세우고, 그 코디네이터들을 지역별 디렉터로 세워 현장에서 전략적 사

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략적 팀들은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을 통한 교회개척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선교는 멈출 수 없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TIM은 안으로는 선교단체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수립을 하고, 밖으로는 각양의 자원들과 함께 융합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모든 것이 다 선교이면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교를 선교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TIM이 새로운 30년에도 요긴하고 합당하게 쓰임 받는 선교 도구가 되길 기도한다.



황종연 목사(Acts29 비전빌리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음에 감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화를’이라는 목표로 1994년 ‘2000/10000’ 비전이 선포됐다. 1995년 6월 ‘온누리선교사훈련학교(MTS)’가 시작됐고, 1996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비전빌리지가 문을 열었다. 2002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OWMC)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선교사 훈련프로그램이 생겨났다. 2002년 2월 평신도 선교학교(Why Missions), 8월 장기선교사 훈련학교(OSOM), 2003년 1월 단기선교사 훈련학교(TP), 2010년 10월 장기선교사 재교육(H2H)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0년에는 온누리 선교의 허브로서, 다음 30년을 향해 가는 ‘Acts29 비전빌리지’가 탄생했다.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사 사관학교, 성도들에게 선교적 영성을 심어주는 시애틀 열방예배, 안식년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의 역할은 분명하다. 첫째,

훈련이다. 선교사 훈련에서부터 은퇴 후 재입국까지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성도들의 영성 훈련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이다.

셋째, 전략연구소다. 온누리 선교 30년의 역사를 매뉴얼화하고,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각 선교지에 맞는 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넷째, 하용조 목사 기념관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시작과 비전, 앞으로 30년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도전할 것이다.

최근 화두는 융합선교다. 모든 부서와 사역이 영향을 주고, 협력할 때 효과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선교현장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누리교회 선교 유관기관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다. 융합선교를 통해 더 많은 선교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이주민 선교를 통해 본 융합선교

온누리교회는 199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고 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는 총체적 선교를 보여주는 융합선교의 좋은 모델이다. 1년 주기로 본 온누리M미션 사역을 통해 온누리교회 융합선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작은 매년 가을에 진행되는 추석 이주민 연합집회(Harvest)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20여 개국 700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2박3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 2000선교 본부,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영어예배, 온누리교회 성가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한다. 매년 1~2월에는 TIM 소속 예비 선교사들이 2개월 동안 안산 M센터에 머물면서 전도방법을 배우고, 교회개척 운동(CPM) 훈련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대일사역본부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통해 말씀을, 여성사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업을 돕는 ‘StarTree’ 다문화사역을, 전도본부는 안산역 노방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온누리M미션에서도 해외 아웃리치를 간다. 올해는 연합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은 외국인 형제자매들의 고향집을 방문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온누리M미션 아웃리치 현장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장이다. TIM 소속 선교사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들을 양육하고, 교회개척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협력해 이뤄낸 융합선교의 열매다.

온누리M미션에서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TIM 소속 선교사로 재파송된다.

이 땅에 온 나그네들,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는 온누리M미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온누리교회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전북 익산 한센인 정착촌에 가다

목자가 양들을 만났을 때

양재 교역자, 인간문화재 정희석 성도, 청년 국악인 아웃리치

다물어지지 않는 입술, 굵어버린 손가락...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써도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그 손을 덥석 잡는 이가 있다. 짓이겨진 피부를 엄마가 아이를 만지듯 사랑스럽게 쓰다듬은 손이 있다. 오랜만에 부모를 만난 것처럼 달려가 안기는 반가움도 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 일행이다. 양재 교역자 일행이 한센인 정착촌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그곳에서 마주한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펴지지 않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기도하고, 와 줘서 고맙다고, 안아줘서 고맙다고, 똑같이 대해줘서 고맙다고 토해내는 고백들이 잊히지 않는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갖 설움을 당하고, 평생을 편견 속에 살아야했지만 천국을 향한 소망을 한시도 놓지 않았던 양들을 목자들이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4일, 양재 교역자 일행이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정다운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정다운교회는 이준명 목사가 18년째 한센인들을 섬기고 있는 곳이다. 지금은 출석 교인이 70~80여 명이지만, 이 목사(당시 전도사)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만 해도 세 가정(6명)이 외로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교회는 문 닫기 일보직전이었다. 그 뿐이라. 교회건물은 짓다말아 어수선했고, 5500만 원이나 되는 빚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다운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시 전도사 3년차였던 이 목사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 교회 문을 닫지 않도록, 빛을 깊이주시기를, 심방할 기쁨이 넘쳐나기를. 이 목사의 진심이 통했다. 5년 만에 교인이 50명으로 늘었다. 8년 만에 빛을 청산할 수 있었다. 교회 문을 닫지 않아도 됐고, 빚도 다 갚았다. 틈틈이 심방을 다녀야 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했다. 간증을 쏟아내는 이 목사의 표정이 어쩌나 해맑던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했다.

정다운교회에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 15명(이상준, 김상수, 김성원, 김영배, 문영재, 김재석, 양성민, 윤경숙, 이기진, 이동훈, 이상진, 이정환, 전재표, 정재욱, 정재문), 청년 국악인들로 구성된 ‘여화동동 팀’(정재문, 박지혜, 윤선영, 송은미, 현비론, 윤송연, 정유라, 손유민), 판소리 인간문화재 정희석 성도(서초3공동체)가 방문했다.

“양들이 기다리는 곳에 목자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순전한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준 목사가 오늘 아웃리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양들을 만난 목자는 역시 달랐다. 굵은 손마디, 하얗게 태색된 농동자, 일그러진 얼굴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말뱃이 되었다. 정성스레 발마사지도 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만난 기쁨을 만끽했다.

여기는 익산복지농원(미음화관)이다. ‘왕궁복지농원’을 위한 공연한마당’이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회관은 입

추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다.

“아이고 아버지~!”

공연이 시작되려던 찰나 한 할머니가 부랴부랴 화관으로 들어오셨다. 등이 새우처럼 휘어진 꼬부랑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외모가 눈길을 끈 것이 아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펴지지도 않는 손을 모아 쥐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 순간 월각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신실함이었다. 경건 그 자체였다. 그 할머니뿐만 아니다. 이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신실함은 남달랐다. 흥겨운 국악 가락에 맞춰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아멘”을 외치던지 당달아신이 났다. 절로 어깨가 들썩었다.

정희석 성도가 등장했다. 그가 판소리 심창기를 울조릴 때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인당수에 빠진 효녀 심청이 “아이고 아버지~”하며 심봉사 와대면하는 장면에 이르자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한센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살고 있다. 혹여나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떳떳이 나설 수도 없는 처지다. 자녀 결혼식에도 못하고, 장례식조차 자녀 없이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센인 부모를 둔 것을 주변인들에게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와 재회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그들이 바라고 또 바리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국내 한센인 수는 약 1만5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가 무려 77%나 된다. 왕궁마을 같은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약 5천명 정도다. 이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1%, 한센양로비 수급자가 83%다. 국가지원에 생계를 의존하는 저소득 층이 대다수다. 게다가 노인독거가구가 45%, 노인 부부가구가 42%로 의료수발환경도 열악하다.

한센인들은 몸이 아파도 웬만해선 병원에 가지 않는다. 굵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한센병은 이미 다나아서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아파도 시내에 있는 병·의원들을 찾지 않고 동네 약국에서 간단히 약을 사먹고 만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기 일쑤다. 한센인들



양재 교역자팀이 정다운교회와 왕궁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러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위)공연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아래)정다운교회 이준명목사(뒷줄오른쪽 네번째)와 양재 교역자팀.

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생활고도 열악한 의료 환경도 아니다. 한센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외로움이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방문을 더욱 반기는 요인이 됐다. 그들은 한없이 격려와 온정을 그리워했다.

발마사지 대신 예배를...

그들에게 양재 교역자들이 다가갔다. 고향의 부모를 찾아가듯 반갑게 다가갔다. 정성껏 발마사지도 해드렸다. 발마사지를 하려고 특별 교육도 받았다.

세 조로 나누어 어르신들을 찾았다. 어르신들은 일행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타지에 나가있는 자식이 온 것 마냥 좋아하셨다.

눈을 맞추고, 인부를 묻고, 어깨를 주물러드렸다. 그리고 발마사지를 시작했다. 쑥스러워하시면서 발을 내미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또 한 번 울컥했다. 빼박에 남아있지 않은 발, 짓무른 피부, 봉대로 찰정 동여맨 어르신까지. 정말 안타까웠다.

발마사지가 한창일 무렵, 이정환, 정재욱, 전재표 목사는 발마사지 대신 기도회를 열었다. 발마사지

를 하러 갔던 세 목사에게 어르신들이 발마사지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발마사지 보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세 목사는 성경책을 펼쳐들었다. 차례로 돌아가며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다. 일일이 인수기도도 했다.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어르신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힘들다. 그만큼 예배에 목말라 있다. ‘인터넷으로 시청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도, 인터넷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방법도 모른다. 기도회를 마친 세 목사가 아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고난과 고통을 겪은 분들이기에 오히려 믿음이 더 신실한 것 같아요. 생각지 않게 예배를 인도를 했지만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섬김에 이준명 목사와 정다운교회 성도들이 한마디 거들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팀들이 찾아왔지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교회는 온누리교회뿐이에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요.”

온전한 섬김을 몸소 실천한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 일행의 모습이 눈부셨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들을 응원한다.

‘화합, 소통, 어울림’ 삼박자가 척척!

선교로 하나 되고,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양지 온누리교회’



▲ 양지 온누리교회 체육대회에서 팀대항 게임이 한창이다.



▲ 차세대들이 풍선 옮기기 게임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태성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왁자지껄하다. 양지 온누리교회 체육대회가 한창이다. 청팀과 백팀으로 성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차세대들은 찬양을 하고, 30~40대 젊은 부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나이 지긋한 노년층들은 이미 동심으로 돌아가 있었다.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인 말 그대로 연합의 장(場)이 펼쳐졌다. 역시 양지 온누리교회답다. 모든 세대가 하나로 연합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언제나 행복이 머무는 교회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다.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 성도간의 격차,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 바로 선교였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있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다보니 장벽이 생길 수가 없을 수밖에.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양지 온누리교회를 찾아가는 길을 걸으면 가을과 동행한다. 빛나는 햇살,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꽃내음 한번 맡아달라고 한껏 애교를 부리는 야생화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다. 이 좋은 가을 날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았다. 양지 온누리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연합이다. 이날도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였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따로 또 같은 교회다. 30~40대 젊은공동체, 차세대, 은퇴 세대를 위한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있다. 세대 간 장벽이 보이지 않는다.

이날은 체육대회와 동시에 하반기 개강예배도

드렸다.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양지 온누리교회를 하나로 묶는 열쇠는 바로 선교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만났고, 하나가 되었다. 같은 비전을 꿈꾸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선교를 지향한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날 체육대회도 한 팀은 교회팀, 또 다른 한 팀은 선교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걸어온 길은 특별하다. 4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베엘교회와 양지 온누리교회가 만나 하나가 되었다. 30~4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의 중심축이다. 젊은 세대가 중심을 잡고, 차세대와 노년세대가 조화를 이루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주민들은 양지 온누리교회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자녀들을 양지 온누리교회에 보내 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도육환 목사는 “양지 온누리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소개하면서 “세대 간의 화합과 조화, 어울림을 위한 연합의 장은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의미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체육대회가 한창인 실내 체육관에서 특별한 만남도 이어졌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만남이었다. 선교사들은 양지 온누리교회 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들은 몽골, 중국, 일본 등지에서 선교하다 안식년을 보내려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은 어느새 하나가 되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연합하는 교회답게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 세계선교훈련원, 열방국 중보기도팀, 선교재단과 어우러짐이 탁월하다. 선교라는 같은 꿈을 꾸고,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연합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양지 온누리교회다.



칼럼 안태환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의 세 가지 특성

양지 온누리교회는 여럿이 모여 하나된 교회다. 온누리교회, 베엘교회, 타지에서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나는 지역적, 교회적 성향이 달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됐다. 자원해서 왔다. 지난해까지 양지 온누리교회를 섬기다 올해 초 양지 온누리교회 부근으로 이사를 왔다.

나는 양지 온누리교회를 성숙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특정한 말씀공동체로 세우는 것과 교회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역했다. 하반기에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도들의 영성을 확립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역의 필요성을 느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성도들 간의 단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개최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자선장을 열어 아웃리치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자선장 수익금은 중국 대련과 베트남 하노이 아웃리치에서 사용되었다. 다양한 사역과 행사를 통해 성도들이 능동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원교회이자 주말교회다. 이것은 교회와 집의 거리를 의미한다. 대부분 양지 온누리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차를 타고 이동한다.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주중에 모이기보다 주말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다. 전원교회이자 주말교회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 양지 온누리교회는 연합하는 교회다. 하나된 교회다. 연합의 장을 자주 만드는 이 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둘째, 양지 온누리교회는 주변 환경이 탁월하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 넓은 주차장, 1층에는 카페, 하용조 목사 기념관 등이 있다. 온누리교회의 영적 산실과 같은 곳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교외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많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김수목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깊어진다. 그뿐이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순모임과 일대일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

셋째,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곳은 5개 기관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 세계선교훈련원, 양지 온누리교회, 열방국 중보기도팀, 선교재단이 Acts29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양지 온누리교회에는 늘 선교사들이 출입하는 곳이다. 선교사들에게 생생한 선교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쉽다. 선교사들이 순에 직접 들어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 국내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들을 초청해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증도 듣는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세 가지 특성을 잘 살려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벽을 허물고, 성도들 간의 교제의 장을 넓혀 더 높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레비 목사와 가족
(온누리M미션)

“Merry Christmas!”

아침 일찍 일어나 페이스북을 확인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까지 116일이나 남았다. 필리핀은 지구 상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장 길게 즐기는 나라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9월부터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다. 쇼핑몰에서는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판매한다. 영어로 9월(September), 10월(October), 11월(November), 12월(December) 모두 스펠링 뒤의 철자가 ‘-ber’로 끝나기 때문에 어김없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관례가 있다.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1521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시작됐다. 필리핀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롯됐다. 1898년 필리핀에 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스페인과 미국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필리핀 사람들은 12월 16일부터 9일 동안 미사

(천주교로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이브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9일간 ‘심방가비(Simbang Gabi)’ 축제로 이어진다. 천주교에서는 복음주의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기간을 알리기 위해 새벽미사를 연다. 사람들은 새벽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다. 9일 동안 새벽미사를 모두 드리는 사람에 한해 하나님 기도를 이뤄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새벽 3시에 미사를 시작한다. 이것은 한국의 새벽예배와 매우 흡사하다. 미사를 드리고 나면 교회 밖에서 파는 필리핀 전통 떡을 산다. 이것을 ‘비방카’라고 하는데 치즈와 계란 등을 얹은 빵이다.

‘푸토봄봉’은 대나무 통에서 쥘 보라색 쌀빵을 말하는데 이것은 카피, 살라밧(생강차), 트스코라이트(스페인식 핫초코)와 곁들여 먹는다.

필리핀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필리핀의 크리스마스이브는 가족 행사다. 저녁 7시부터 9시 즈음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이브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미사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자정에 ‘노체부에나’를 기념한다. 노체부에나는 ‘좋은 밤’이라는 단어다.

노체부에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매우 흡사하다. 저녁식사 시간에 많은 음식을 차려 온 가족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준다. 이 시간 바로 필리핀 크리스마스 행사의 절정이다.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선물도 교환한다. 그렇게 평안한 밤을 보내면서 12월 25일을 기억하고 맞이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좋아한다. 소나무가 없는 필리핀에서는 ‘파롤’이라는 별모양 등을 구매해 장식한다.

크리스마스의 아침에는 어른들을 찾아가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이것을 ‘파그파미노’라고 하

“Merry Christmas!”

9월부터 시작되는 필리핀의 성탄절



▲ 필리핀 고유의 축제 ‘심방가비(Simbang Gabi)’



▲ 필리핀 전통 떡 ‘비방카’

는데, 필리핀인들이 존경을 표할 때 하는 인사말이다. 파그파미노는 어른들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마노포”라고 말한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그날을 기념하



▲ ‘노체부에나’를 기념하는 필리핀 사람들.

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자 “마리크리스마스!”



목회칼럼 우윤상 전도사(길공동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반응하자

진짜 나를 만날 시간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라일리’라는 어린 소녀의 다섯 가지 감정을 표현했다. 다섯 가지 감정은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분노다. 이 영화는 다섯 가지 감정을 다섯 가지 캐릭터로 그

려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까.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영화와 우리를 비교해보자.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는 늘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보인다. 기쁜 감정이 올라오면 슬픈 감정은 줄어든다. 밝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만 지속된다면 우리 삶은 행복할까. 아니다. 라일리는 슬픈 감정이 올라오면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 이처럼 감정은 늘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다. 슬픔도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해줄 수 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할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함께 슬퍼

하고 울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없이 감정을 나눌 때 비로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롬 12:15).

내적 갈등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슬프고, 힘든 감정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반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다. 왜 화가 나고, 우울한 지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아가야 한다.

주인공 라일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몰라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된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한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기 이전에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창 4:6-7).

결국,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동생을 해치고 말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잘 알아야 한다. 나를 잘 아는 것은 타인을 돌볼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섯 가지 감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CGNTV와 CCT가 태국 및 아세안지역 기독교텔레비전방송국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CGNTV, 태국기독교총회와 업무협약 체결

태국 및 아세안지역 기독교텔레비전방송국 설립 추진

CGNTV가 태국기독교총회(CC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태국 및 아세안지역 기독교텔레비전방송국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지난 9일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훈 목사, 유재건 장로를 비롯한 CGNTV 임직원들과 타위삭 마하차와롯 목사(CCT 총회장), 룡 린싼아찐 목사(CCT 부총회장), 꾸썽 쏘끼따판 장로, 쿤분넷, 아진위왓 등 태국기독교총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CGNTV와 CCT 기관 소개,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이재훈 목사 설교, 타위삭 마하차와롯 목사(CCT 총회장) 감사 순으로 진행됐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CGNTV가 겸손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태국 교계가 교류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아세안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 CCT는 태국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기독교 단체다. 규모가 천주교 다음으로 크다. 1934년 7개 노회 9421명의 교인들이 사이암기독교교회를 조직했고, 1943년 CCT로 명칭을 변경했다. 19개 노회에 844개 교회 약 17만여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 5개의 신학교육기관, 2개의 대학교, 8개의 병원, 25개의 교육기관, 32개의 외국선교단체에 116명의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회선교 캠페인 ‘빛으로부터 자유를’

청년 부채문제 해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부채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재정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년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초기상담 및 응급조치, 부채문제 정밀진단, 해결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실행지원 및 사후 관리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1:1상담 하고, 개인

정보는 보호된다.

대상은 학자금 대출, 비자발적 실업, 생계비 조달 등으로 고민하는 온누리교회 청년이나, 그런 청년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추천이 있으면 된다. 신청은 10월 20일까지 사회선교부 웹사이트(<http://sjmonnuri.org/loving-u-debt>)에서 하면 된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하면 일대일, 일대일하면 온누리교회

〈2인 3각 행진곡〉 정호욱 목사 지음, 두란노, 12,000원

“일대일 제자양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로 태어나는 축복된 과정입니다.” 30년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 온 정호욱 목사의 말이다.

일대일은 온누리교회 대표 양육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하면 일대일, 일대일하면 온누리교회가 떠오를 만큼 유명해졌다.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하용조 목사의 믿음은 확고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



기를 소망했다. 그 믿음이 온누리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인 3각 행진곡〉에는 그 믿음이 일대일 제자양육의 역사가 담겨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치유되고 변화된 성도들의 간증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9월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2015년 9월 20일(주일) / 서빙고: 오후 5시~ 양재: 오후 3시 30분 부터

서빙고: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 양재: 드림홀

서빙고: 2015년 7월12일~9월 5일까지 새가족 과정 수료자 / 양재: 2015년 7월 1일~8월 31일까지 등록한 성도

■서빙고	강 춘 이창희 송지우 김성철 김현숙 조지연 고양은평 윤현주 심태은 신민경 관악금천 박지혜 신내철 신영희 진정미 김은정 광 명 심경아 김 포 이욱재 채윤경	노 원 송지우 김성철 김현숙 조지연 동 작 박혜민 이남선 강민주 장지원 김윤희 이은숙 방진석 정유진 마 포 김철기 한상훈 오금순 김정숙 윤보미 김지현	서대문 진성권 성동광진 공재철 강혜영 이연순 곽병호 서신정 심광섭 임상균 성 북 이경민 신용산 임제니퍼 이환웅 노승인 최승현 이우홍	양 천 인태환 김영욱 최호영 이서정 임무택 영등포구로 이영순 서신정 심광섭 임상균 성 북 이경민 신용산 임제니퍼 이환웅 노승인 최승현 이우홍	이 촌 이해성 이해찬 김홍주 김 준 김경희 중종로 윤지현 임동희 최인경 특별한초대 조영희 김영정 민경원 은진화 한 강 김성훈 윤지인 박찬홍 송희정	황환석 김영규 ■양 재 강남A 강성욱 정희승 한재기 강남B 강효실 권혁희 김지연 김해완 나은영 이신영 홍혜경 강남C 강보경 김봉자 김수현	남영현 서강석 이영주 이은열 이재준 임하영 최영숙 황영애 황진희 강남D 김두환 김려진 김민아 박사무엘 과천의왕 권명중 김완찬 박인화 변진숙 송기선 안성진	이용성 정다원 황보아 분당A 김명자 김수민 백준오 조성욱 조철진 분당B 김상희 김은혜 김정환 오세호 임상명 산본안산 김성진 서초A 김명화	김문선 김문정 박애란 신수광 정지설 서초C 이원영 서초D 김정효 도현경 박해진 양준성 여규현 정우성 송 파 최은주 안양평촌 김동일	양재 김종만 김현민 문희 박영길 유봉희 유지현 이상현 이지현 장인옥 주은숙 황원자 푸른누리 서정원 유진곤 이선근 이슬기 장진관 정주환
------	---	---	--	--	--	--	---	--	---	--

아이스쿨, ‘온누리카페’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이스쿨 본부에서 온라인 그룹 커뮤니티 ‘온누리카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온누리카페는 아이스쿨 사용자들이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채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아이스쿨 담당 총무가 1개의 카페를 개설할 수 있고, 아이스쿨 수강생에게

초청장을 배부할 수 있다. 온누리카페는 교적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에서 ‘온누리카페’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 남승도 간사 02-3215-3122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소셜 미디어에서 복음 전하는 ‘#goeverywhere’

스마트폰 앱 ‘yesheis’ 서비스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동시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goeverywhere’ 운동을 벌인다. ‘#goeverywhere’ 운동은 썬더클랩(Thunderclap)이라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해 9월 30일 저녁

7시30분 동시에 복음을 외치는 캠페인이다. <http://krgoeverywhereglobal/>에 방문해 썬더클랩에 등록된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된다. 6개 대륙 14개 이상 언어로 진행된다.

문의: junwonshon@cvglobal.co

재정국 팀장 채용 공고

온누리교회 재정국 팀장을 채용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한지 10년 이상 된 안수집사로 재정관리와 회계업무 경험자가 대상이다. 신앙심이 깊은 성도를 모집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이다. 이메일(chang58@onnuri.org)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장경식 장로(02-3215-3647)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9월 24일 입학설명회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학설명회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기념홀(본교 4층)에서 열린다. 2016학년도 신입생 입시 관련 모집 설명과 학교소개 및 재학생들의 간증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한국인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오후 5시부터는 외국인인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진행된다. 문의: 02-570-7375

Love Sonata 오이타 기·도·제·목

- 9월 14일(월) 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일본 선교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 9월 15일(화) 일본 전역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도록
- 9월 16일(수) 오이타 교회들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빛을 발하도록
- 9월 17일(목) 오이타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서로 하나 되도록
- 9월 18일(금)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 9월 19일(토) 출연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도록
- 9월 20일(일) 봉사자, 스태프들이 음식과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 JDS 아웃리치, 그 못 다한 이야기



/ 김상모 성도(수원 JDS)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여보, 아무래도 이번 아웃리치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나기 열흘 전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이다. 아웃리치를 떠나야 할 날이 2주도 남지 않았는데 남기가 압박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거래처의 휴업으로 숨통이 트였다. 캄보디아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나는 JDS(예수제자학교)에 참가하기 전에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그런 내가 JDS 훈련을 받고,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 중 앙코르와트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선교사님께 들은 귀한 말씀과 회개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담대하게 그곳에 갔다. 앙코르와트 한 가운데서 모두 합심기도를 할 때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 수없이 많은 석상들을 향해 대적기도를 할 때도 마 찬가 지였다. 거대한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손을 뻗으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내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예전에 친구였잖아? 삼천배를 드리고 아 침자녀으로 예배하던 친구였잖아”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신자였다. 대학교 때는 불교 학생회에 가입해 활동했을 정도로 신실한 불교도였다. 그런 내가 무니만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나를 놓지 않으려는 사단의 세력이 쿨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나는 무

엇인가에 심하게 놀리는 것을 느꼈다. 기도를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돌아서야 했다. 그 놀림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팀장님께 도움을 청했다.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 줬는데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팀원들에게 나의 상태를 호소했다. 그러자 팀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해주었다.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나서 드디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를 크게 외쳤다.

“내 모든 죄를 주께 회개하였으니, 내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 후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고백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이번 여름이 당신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네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아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새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 CGNTV 후원자 스토리



내 사랑 CGNTV

/ CGNTV 후원자 메종슈에트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 미신을 믿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가 나더러 교회사역을 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그러다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그 분도 내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그때서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4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례는 드문 것 같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방송을 접하게 됐다. 케이블방송 채널을 돌리다 CGNTV를 보게 됐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는 교회를 매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매일 아침 ‘생명의 삶’ 큐티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그 시간에 공급받은 말씀이 지금까지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하루에 4~5시간씩 들었다. 열린새신자예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찬양하는 것을 보고 찬송가도 배웠다. 지금도 CGNTV를 열심히 보고 있다. CGNTV가 내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준 것 같다.

나는 CGNTV 덕분에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월요병이 없다. CGNTV를 통해 온누리교회 주일에

배를 다시 볼 수 있어 월요일이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CGNTV를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본 것에 대한 답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매월 1일에 여러 기관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CGNTV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후원하려고 한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후원하고 있다. 방송을 보다가 문득 더 많이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증액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 달 전쯤 우연한 기회에 CGNTV 〈리빙라이프〉 프로그램을 내가 알하는 가구점에서 촬영했다.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CGNTV가 내가 알하는 곳에 와서 촬영을 하니 반갑고 신기했다. 그렇게 CGNTV와 나의 특별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CGNTV는 다른 기독교방송 보다 젊고 신선하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져 소개하기도 좋다. 다른 방송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 좋다.

내가 CGNTV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자라난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CGNTV가 길잡이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 가정사역공동체 희락다락방 아웃리치 후기



/ 권수라 집사(가정사역공동체)

통일을 준비하는 공동체

유난히 더운 여름의 끝자락, 가정사역공동체 희락다락방이 강화 교동도에 위치한 무학교회를 하루 동안 섬기고 돌아왔다.

무학교회 방문은 특별했다. 이곳은 남다른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강화도에 위치한 교동도는 북한과 근접한 곳이다. 1973년 창립된 무학교회는 북한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졌다. 우리는 이 사역을 준비하며 북한 땅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다. 우리가 방문한 시점이 남북이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맴돌았다. 극적인 남북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릴 수 있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을을 예고하는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둘렀다. 지난해 7월 개통한 교동대교가 눈앞에 보였다. 이곳은 보안지역이라 신원을 기입하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한 두 가정씩 교회에 도착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손을 건어붙였다.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 준비도 도왔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우리에게 대접할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의 손길이 귀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고맙다”고 하

셨다.

예배 시간이 되어 본당에 들어갔다. 해병대원들이 앉아있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계셨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팀, 설거지팀, 전도팀, 이혈치료팀, 교회 청소팀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섬김을 시작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역을 통해 갖고 닦아진 남자들의 설거지 솜씨를 보고 무학교회 권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셨다. “여기 남자들은 코 앞에 커피를 갖다 줘야 해. 설거지는 꿈도 못 꾸지”라고 말씀하셨다. 마 을회관에서는 3명의 자매들은 이혈치료를 시작했다. 이혈치료는 인기가 많아 늦게까지 이어졌다. 무학교회에 특별헌금도 전달했다. 이 헌금은 무학교회 십자가와 지붕공사에 쓰인다고 했다. 불을 밝힌 십자가는 북한에서도 보인다고 했다.

오는 길에 강화 평화전망대에도 들러 북한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땅에서는 복음도, 찬양도,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짐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 일대일 제자훈련 수료 간증



/ 유해무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그 눈물의 의미

작년 11월 15일 영등포구로공동체에서 실시한 ‘가을 산책’이라는 모임에 참석했다. 방 송국 동기이자 친한 형인 장광 장로님의 초대 를 받았다. 그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간증문을 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을 산책 모임에 참석해 무대에 설치된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보다 어리지만 친구 같은 동기”,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낸 동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채워졌다. 그리고 내 사진이 보였다. 장광 장로님의 인터뷰도 나왔다. 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순간 목이 메어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해 12월 처음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 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아직 초신자라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 싶다. 나를 양육 해주신 정광렬 장로님 덕분에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일대일 교육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도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것에 나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하다. 신실한 성도님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나는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매주일 아침 5시30분에 일어나 교회에 온다. 나에게 는 기적이 가까운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 으면서 잘 몰랐던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큐티의 중요성도 배웠다. 큐티도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것이다.



장로칼럼 정운오 장로(사회선교 분과위원)

사회선교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

과거 복음주의 진영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어난 대표적 선교운동이 바로 로잔운동이다. 그동안 로잔대회는 3차(1차 1974년 로잔, 2차 1989년 마닐라, 3차 2010년 케이프타운)에 걸쳐 개최되었다. 복음주의 진영의 전통적 특징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전도를 교회의 사회적 참여나 책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1차 로잔대회 선언문은 교회의 사회참여를 언급하면서도 ‘전도의 우선성’을 훨씬 더 크게 부각시켰다.

그런데 2차 로잔대회를 거치면서 사회·정치적 참여를 통해 교회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섬길 책임이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존 스톱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물질적 필요가 너무 커서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기쁨을 바르고 치료해주는 것이지, 그의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전도의 우선성’과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해 오랫동안 논쟁과 갈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도와 사회참여가 상호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이 2차 로잔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정의와 인권과 식량과 삶의 터전을 유린당한 자들을 향한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차 로잔대회의 정신은 3차대회에서 ‘총체적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케이프타운 선언문 10장을 보면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질서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대

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교는 복음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 참여를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략)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를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인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은누리교회도 작년부터 이런 총체적 선교의 정신으로 사회선교를 시작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선교 사역의 성격이 2차 로잔대회 선언문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선교는 항상 성육신적이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은누리교회 성도들이여, 사회선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

첫째, 은누리교회가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경제적,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헌신하도록 기도하자. 그들이 처한 현실과 슬픔, 고통에 동참하는 성육신적 사회선교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건강한 생명운동이 일어나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최근 창조질서를 교란하는 동성애와 성매매 합법화 시도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꾀계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져 불법(不法)과 불의(不義)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자. 독재권력, 종족 간 갈등, 인신매매, 아동노예, 전쟁, 테러,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제도적 폭력들을 제거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해야 한다.



권사칼럼 백미애 권사(산본안산 공동체)

아름다운 이별연습

구원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때가 벌써 수년전 일이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시집온 나는 시아버지의 병환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진다는 믿음이 있었다. 시아버지는 병상 세례를 받아 천국에 가셨고, 시어머니는 20년을 우리와 함께 사셨다.

시어머니는 천국 가기 전 1년 반을 병상에 계셨다. 병상에서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 하였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잊지 않는다. 나는 15년 동안 섬겼던 성가대 사역을 내려놓고 간호에만 전념했다. 구수에 차매가 있던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힘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자주 씻겨드리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는 세례를 받으셨지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다. 주변에서는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기를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어머니를 간호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시장을 오가며 길가에 핀 꽃과 나무를 보고, 하늘도 바라봤다.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남편의 배려로 월요일에 여유가 생겨 권사 사진반에 들어갔다. 월요일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냈다. 그 시간을 통해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지극히 가정적이던 남편은 늘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자였다. 그러나 남편의 믿음이 연약해 가끔 영적인 대화를 할 때

면 잘 통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견딜 수 없었던 일도 많았다. 나의 갈급함은 공동체를 통해 채웠다. 예배드리고,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내 삶의 원동력이었다.

올해 3월 아흔 한 살 시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보냈다. 나는 몇 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시부모님 병간호 하느라 하지 못했던 사역을 다시 시작했다. 겸손하게 가정 일에 순종했던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자유가 없어지는 시간이 내내 불편했다.

오랜 시간 집안일만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컸다. 하나님은 부족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실수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 나를 공동체 대표권사로 세우셨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부족한 나를 견고한 자녀로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하며 소홀했던 친정 부모님과 시간이다. 자녀를 위해 굶은 허리, 새벽제단을 쌓는 팔손의 친정 노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분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슬프지만 또 한 번 아름다운 이별연습을 하고자 한다. 어머니와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조준목 목사(J4U공동체)

일상에서 만나는 천상(天上)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다.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듯이 인간은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하늘로 돌아간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서 천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한다. 집회를 찾거나 기도원에 들어간다.

어렸을 적 다녀온 수련회가 기억난다. 영적 체험을 하고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방언을 받은 친구를 보고 경쟁심에 더 큰소리로 기도하기도 했다. 나도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면 실망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일종의 부작용이었다. 특별한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변화산에서 제자들도 그러한 영적 체험을 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특별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천상을 경

험하는 자리는 집회나 수련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천상으로 이어지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 다니엘은 음식을 절제함으로 천상의 지혜를 받았고, 다윗은 양을 치던 밤에 별빛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열두 제자들은 익숙한 식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매일 먹는 평범한 빵을 통해 전달되었다.

나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천금 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한다. 에베소서에는 부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우리의 영적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창조의 역사 중 최고의 사건이다. 창조자와의 결혼 생활이라니... 너무 환상적이어서 상상조차 어려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은 천상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부부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연애결혼을 했다. 아내와 10년 동안 살고 있다. 내 인생에

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아내라고 이야기하겠다.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금슬 좋은 우리부부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 다들 어찌지 않은 미성숙한 나의 인격은 품어야 할 아내를 공격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아담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했다. 그럴 때는 천상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대부분 아니 어찌면 모든 부부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부부의 관계는 여전히 최고의 천상을 경험하는 장소다.

매우 소소해 보이는 일상에 천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상의 냄새를 맡고, 발견하기를 기대하신다. 한 주 동안 이어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천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신다. 놀랄만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천상의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욱 천상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많은 부부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기도한다.



주일강단

기도응답의 확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하셨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의미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기도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한마디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뜻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먼저 듣고, 그 뜻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 들여야합니다. 그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350년 전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이 왜 기도응답을 지체하시는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시

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응답이 이뤄질 때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응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은 것을 너무 급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이 늦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출생의 때와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타이밍에 구할 때에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김지수 금세종
김현아 임선영
신승모 오승탁
허광범 서재원

■ 강서
곽지현 이미지
김고운 박인경
김미옥 이선경
김상규 채홍장
박경희 윤영애
송미경 박은희
여지희 이은옥
오영수 송성민
오종연 김익권
이진 정성희

■ 강춘
김수 강태욱
박수미 안은영

■ 고양은평
김은식 김용수
신우린 김재숙
안소현 신향숙
전남철 현진철
진승연 신현숙

■ 관악곡천
강은정 김영주
고병준 박미숙
권은미 양금화
김승주 문석곤
김연정 한경숙
이영호 김성의
지혜라 하지영

■ 광명
이효성 이성순
정준원 고영선

■ 김포
김동욱 이영희
김지광 안현기
이주현 차윤숙

■ 노원
손운우 류승호

■ 동대문중앙
강경열 염혜숙
고정일 박희숙
김주현 강윤주
김미진 이종례
김용준 오금주
김종열 강윤형
김혁건 이승찬
송선애 오혜란
이규동 박진원
이승주 최향묵
하희정 손영애

■ 동작

김미란 권정숙
류석형 권태남
박선숙 김유미
송영주 김태의
오정환 이성환
이동현 반상섭
이선민 이원숙
정요영 엄지용
정우성 엄기은
최은숙 김숙자
최정애 박영희
한홍진 김용덕

마포

김선일 김금수
김일숙 김정희
신동원 이경옥
유은진 광송미
이경자 김숙경
이호준 이경태
정장용 김경대
조미정 박혜영
최은정 김명원

북누리

남성진 전경철

서대문

김남영 고광범
김은진 송재용
김호신 황덕원
맹성환 임덕원
백경남 함명애
심미숙 조대선
양희 김진국
오주희 김재자
유수현 신화미
이주희 선영미
이진영 박장남
조재일 황성용

서빙고

김윤수 김성원
김울 김석훈
신형식 박정신
이은정 손은경
조은혜 조희성

성동광진

김세리 이승혜
박지연 김태연
서경교 성명심
양정순 박은실
원성빈 성지중
이영환 조승중
이주 김향우
전재화 윤부용
홍계원 이숙희
홍성규 이동현

성북

김세자 김재순
김왕원 이호천
박영희 김진자

윤선령
OTAKE MAYUMI
김영숙
SHIN KAZUHIDE
나문채
김만규 배성한
김희경 허연지
송현화 박경녀

일산

나예린 김미현
최왕희 이화영

중국어예배

한태곤 유종현

중종로

김태호 박민서
박성철 김예수
변은미 윤미숙
신선에 최승연
이요섭 박희철
차주영 김영주

천양역공동체

강민선 최준숙
김종민 강중현
최성연 윤영미
최은미 이혜진

한강

김영숙 손인희
김정주 엄성신
김정호 박현나
이은화 맹미영
장원복 김재희
정주안 김동우
한경식 권배주
황지현 김명희

특별한초대

김경민 문혜란
김지환 이종구
명시연 송용재
박석현 임덕원
박영조 박영우
박찬홍 김창무
손지원 유승희
이무창 박상민
이시라 김수정
이영지 광정화
이예림 박명숙
이원아 김정희
이준식 박소현
장인영 장순우

기타

강명지 김인숙
구본미 어원경
구혜숙 김인숙
김경애 김경아
김수현 안세진
김진아 서현주
문종환 김찬호
민경윤 김연경
박민재 한석

일본어예배

KOBAYASHI YOKO

설지원 김현경
윤은진 이선옥
이수정 고영선
이장욱 장길성
이혜승 문미옥
이혜영 고영신
장유리 김민애
정보희 원유미
정상훈 윤내문
황한나 이승강

OCC

최민혁 노홍구

S브릿지

강유미 정송자
고은주 이한숙
권보영 최지영
김민정 연영옥
김범준 김준연
김보현 김주연
김석원 배준학
김세영 이소옥
김지수 함선영
김지숙 강연희
김지현 송용재
김진석 전지옥
김현숙 최준진
김지현 성구진

강남C

강문기 양익환
강문봉 김민선
이석현 김종민
고관식 강진권
김대성 김용상
김도관 박경배
김미래 배소영
김재원 김경아
박소주 이미경
박종용 송기환
박혜경 이한숙
배준근 이범구
손은미 최명숙
신현민 오정원
유숙희 박희란
이경숙 김소옥
이명원 허란경
이상돈 오호택
이혜자 최규국
전은은 송정선
이준우 이경숙
이제원 양웅
이종구 박주덕
이진아 최은정
이현경 송민선
이혜경 조선희
정재현 김경문
정진희 박미숙
조미경 김명희
채동기 김재홍
채민정 이은주
최민석 황성우
최성혁 성기준
황지현 강은형

강남D

김기영 김기영
김민정 오경옥
김경순 김경순
김창원 하태승
정현호 최재만
조시현 강수경
최진희 박동희

과천의왕

김재석 손기완
손우리 김윤희
원종환 정성기
유명리 김상목
이재영 신경화
장욱안 김경순
조동석 이재용
최진영 김영미
홍순주 김상민

분당A

인지윤 윤정화
윤진수 전용수
현영진 윤승의

홍세훈 김인수
■ 분당B
강유라 강우경
김신혜 안혜준
도윤정 김현미
윤명자 차정순
조은미 김성림

신분안산

김동철 유우선
김은애 라종일

서초A

강현수 임훈수
박희숙 정종경
백수현 김영
신은정 박은미
심영수 최숙경
이석현 김종민
이재희 이경남
전수연 김수정
정수웅 이경환
정지원 양혜영
최숙경 박진희
허유 염태관

서초B

강희년 최미혜
노윤수 강기홍
배경희 서혜영
어은경 나선미
이임분 양정숙
전희수 정철영
정하정 임도희
최영민 최소영
한송희 최규순

서초C

양윤정 김윤정
정택 이규만

서초D

노은경 김지영
노현경 조연경
문수민 김선민
여규현 임승호
윤희성 박홍선
이연 지미화
임선정 최양혜
전문수 이수영

송파

김수경 김이랑
김종승 이덕홍
김지영 이양길
윤성아 조영미
이세경 심경옥
이세연 문영선
임화심 이월순
조영수 예상옥

안양평촌

오윤진 한진옥
주상선 엄성현

■ 양재
강선진 김양희
구교열 최보출
김정순 김준영
김혜숙 이경숙
모순자 최의자
문선희 백윤옥
박수영 권호순
박순호 장정열
신혜정 사미옥
심형미 정현주
양승민 윤홍석
양영찬 이용권
유병화 최의자
이경숙 전임분
이규식 이형만
정지연 박정춘
조승식 한규용
주영도 김안강
최정신 김주연
허명숙 강선희
홍만복 김원식
홍성준 황순규
황병덕 이경섭

푸른누리

김길우 엄종훈
박주오 차준근
박주희 이성희
서연규 이상준
신은혜 김영순
이효정 김정미
정수연 이선영

특별한초대

배혜진 김윤경

■ 대청
■ 가타
김준희 이종현
이영근 장광열
장혜영 이은경
최계윤 황보선

Bridge33+

김보영 이명신
김상옥 유경화
김희숙 이준희
민세홍 임승섭
이태우 김주연
박정혜 임재희
박호림 고길범
백병철 임정숙
신선희 김영선
오지영 하정인
원종실 양성철
윤의정 장주환
이태우 홍해남
임호진 심효무
정영고 장현식
정인숙 장덕희
조영희 신윤옥
최혜민 이미지
황선영 윤혜경
황수련 정수선

Harmony

김애나 정지현

Point5

박성규 김예선
손나리 김현순
이석진 정영환
홍지운 전애옥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 갈렙
강정모 강경국
고동일 윤호석
박지애 김희숙
오승훈 박진
이은혜 박선향
정다운 장선미
최지혜 조수영

길

박현우 이금자
이경 안종복
한미영 이현창
홍정기 박기홍

여호수아

고광혁 홍해남
김건원 안종일
김고운 김영선
김관식 김준현
김나리 이선희
김수정 김은아
김승환 윤용옥
김예슬 강순영
김유리 김경숙
김은지 장지은
김희진 이명옥
나준석 안광영
박상은 이숙경
박선민 양형식
박윤나 정현주
배유구 최성민
서아영 김두희
송민정 정현숙

요셉

강미진 김명미
곽승민 신승희

SNS

강미승 김윤정

김철주

정로반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심민화 윤현정
양진서 소현관
우요한 엄선관
윤지희 채수경
윤혜경 남해옥
이규환 박건용
이미지 박주원
이민정 이지혜
이상협 추정훈
이성은 이지현
이아영 최세윤
이은나 정문순
이지연 송호준
이창석 이영우
이현숙 최희정
이현주 권호순
이현주 김희자
이혜린 박영혜
이화영 하인주
임일현 방호영
장미 서동화
정소진 노경심
정승아 김희순
정유진 김은영
정혜민 황재현
조신영 황석연
조정래 강호형
진혜광 한우희
최민영 우정현
최봉민 이상영
최한웅 심성규
하대성 김인수
한윤지 김은경

요셉

강미진 김명미
곽승민 신승희

SNS

강미승 김윤정

김철주

정로반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김수현 이정희
김지연 박주현
김현경 김순애
박지현 박주현
배미현 심민자
신현하 김주연
이길택 강영재
이진수 문영배
전나라 문성희
정태성 최석민
표성렬 이재경

하늘

김정희 한상규
김현영 박영규

허브

김미정 박서영
김민정 박경주
김지현 한정자
이정진 임봉자

J4U

권혁준 문혁훈
김재우 이기현
노주리 이세화
성대중 광곡봉
이선호 박영란
이치현 서혜영
정정윤 이승기

Pole2

조경원 김선미
한누리 염경숙

SNS

강미승 김윤정

김철주

정로반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

박은지

양성민

박재민

양재

김필옥 김필옥

이기진

박윤

정재욱

김주천

황종연